

三國史記의 服飾研究 IV
—色服의 婦人 服色을 中心으로—

金 鎮 玖

漢陽大學校 衣類學科 教授

A Study on Women's Costume Colors in the Sumptuary Laws
of Silla in Sam Guk Sa ki(三國史記)

Jin Goo Kim

Professor, Department of Clothing and Textiles, Hanyang University

目 次

Abstract

I. 緒 論

II. 新羅女子服色の 解讀

III. 九色の 解釋과 色名

IV. 新羅階級別 女子服色禁制

V. 新羅女子服色の 分類와 名稱

VI. 結 論

參考文獻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and to classify the names of costume colors of women of Silla.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

Until now scholars and researchers interpreted nine colors in Sam Guk Sa Ki as nine colors explained in the dictionaries.

However, term, nine colors in the contexts did not refer to the literary meaning of nine colors such as blue, red, yellow, white, black, green, purple, pink, and navy blue as explained in the dictionaries.

'Nine colors' of Silla were women's costume colors which were specified in the royal edict in the texts. Thus, 'nine colors' of Silla had a specific meaning rather than literary meaning.

'Nine colors' of Silla women's costume were identified as red (緋), yellow(黃), purple(紫), purplish pink(紫粉), gold powder(金屑), pink(紅), yellow powder(黃屑), dark pink(緋) and dark purple(減紫).

These 'nine colors' were actually prohibited colors in women's costume in the royal edict. Women from *true bone*, the highest class, were prohibited the use of two colors of red and yellow out of nine colors.

이 논문은 1997년도 한양대학교 교내 연구비로 이루어진 것임.

While women from four *du pum* and common class were forbidden the use of nine colors out of total of nine colors.

Kinds and numbers of colors of costume were used as a means of differentiating the social class and rank of women in Silla.

Also it was found that women of Silla favored red purple, pink tones and yellow color in their costume and these colors were fashionable colors among women of Silla.

These fashionable costume colors of Silla women seems to be influenced by fashions of women of T'ang dynasty of China.

Red, purple, pink, yellow and green were favorite colors of women of T'ang dynasty of China.

I. 緒 論

三國史記 33, 雜誌 2, 色服條의 興德王 服飾禁制에는 新羅婦人의 服色에 관한 기록이 있다. 이 기록은 研究資料가 稀薄한 우리나라 古代服飾研究에 貴重한 資料가 된다. 그럼에도 이것에 대한 研究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왔다.

色名이 記錄으로 남아 있지만 그 글자들을 이디에서 끊어 읽어야 하는지조차 알지 못하므로 色名의 분류와 명명, 그것에 대한 규명도 바로 되지 못하였다.

本 研究에서는 三國史記 33, 雜誌 2, 色服條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新羅婦人의 服色을 규명하고 분류함으로써 新羅의 服飾色彩名을 바로 찾고 項目에 따라서 그 색에 대한 說明을 하고자 한다.

II. 新羅女子服色の 解讀

먼저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女子服色에 관한 기록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기존의 연구를 제시하고자 한다.

眞骨女	九色禁赭黃
六頭品女	色禁 赭黃紫紫粉金屑紅
五頭品女	色禁 赭黃紫紫粉黃屑紅緋
四頭品女	色禁 赭黃紫紫粉黃屑緋紅減紫
平人女	色與四頭品女同

위에 보이는 記錄을 읽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몇 개의 三國史記 翻譯本에서 예를 들어 보고자 한다.

1. 北譯本(1958)

眞骨女 九色禁赭黃의 赭黃을 자황색
 六頭品女의 赭黃紫紫粉金屑紅을 자황색, 자색, 자색 분, 금가루 빛, 붉은 빛
 五頭品女의 赭黃紫紫粉黃屑紅緋를 자황색, 자색, 자색 분, 누른가루, 진홍 빛
 四頭品女의 赭黃紫紫粉黃屑緋紅을 자황색, 자색, 자색 분, 누른가루, 진홍색, 홍색, 덜자 색.

2. 金鍾權譯 三國史記¹⁾

眞骨女 赭黃을 자황
 六頭品女 자황자자분(赭黃紫紫粉)
 금설홍(金屑紅)
 五頭品女 자황자자분(赭黃紫紫粉)
 황설홍비(黃屑紅緋)
 四頭品女 자황자자분(赭黃紫紫粉)
 황설비홍멸자(黃屑緋紅減紫)

3.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1983)

자황색, 자황(赭黃)
 자자분금설홍(紫紫粉金屑紅)
 자자분황설홍비색(紫紫粉黃屑紅緋色)
 자자분황설비홍멸자(紫紫粉黃屑緋紅減紫)

4. 譯註 三國史記²⁾

자황(赭黃)
 六頭品女 자자분금설홍(紫紫粉金屑紅)³⁾

1) 韓國名著大全集, 1979.

2) 韓國精神文化研究, 1997.

3) 譯註 三國史記, 4, 주석편 73, p.121.

五頭品女 자자분황설홍(紫紫粉黃屑紅)
 四頭品女 자자분황설비홍⁴⁾(紫紫粉黃屑緋紅)
 멸자(滅紫)

그리고 뜻을 紫紫粉金屑紅은 자주색 가루와 금 부스러기를 입힌 주홍색, 紫紫粉黃屑緋紅은 자자분 황설홍과 다홍(緋)을 가리키는듯 하다고 추정하였다. 滅紫는 퇴색된 자주색을 가리킨다고 하였다.

위의 내 번역본의 예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本文을 읽는 방법이 제각각인데 이로 인하여 色名도 제각각이 되고 色名에 대한 해석도 제각각이 될 수 밖에 없다. 다른 번역본들도 읽는 방법이나 해석이 모두 위와 大同少異하다

위의 四例中 色名の 해석이 틀린 것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本文을 제일 많이 땀어 읽고 번역한 것은 北譯本이다.

北譯 三國史記에서는 絳, 黃을 자황색으로 번역하였고 이병도와 그외의 다른 번역본에서도 絳黃을 絳, 黃으로 읽지 않고 絳黃으로 읽었다. 이 絳黃에 대한 해석은 어느 번역본에서도 찾아 볼 수 없고 정신문화연구원刊 三國史記 번역본에서만 絳黃을 적갈색 또는 밝은 벽돌색을 가리키는듯 하다고 추정하였다.

本 研究者는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女子服色에서 眞骨女부터 平人女에 이르기까지의 女子 모두에게 使用하는 것을 禁止하고 있는 絳黃은 一色이 아닌 絳, 黃으로 읽으며 따라서 絳와 黃의 二色으로 해석한다.

그러나 여기서 絳黃色の 意味에 대하여는 전공자들조차 바로 이해하고 있지 못한 것 같아서 바로 잡고자 한다.

韓國服飾史 辭典에서는 絳黃色을 朱黃色이라고 설명하였다. 이 말의 漢字字義로 보면 絳+黃이므로 絳黃色은 朱黃色이란 해석도 가능하다. 그러나 絳黃色은 朱黃色이 아니다.

韓國服飾史 辭典에는 新羅의 眞骨層, 六頭品·五頭品이 絳黃色の 衣服을 착용하는 것을 금하였고 聖骨層에서만 사용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미 앞에서 본 것과 같이 興德王 服飾禁制에서는 眞骨女에서 부터 平人女의 服色에 絳, 黃色을

사용하는 것을 禁하였을 뿐 男子의 服色에 대하여는 아무 글及이 없다.

眞骨에서 부터 五頭品까지의 사람에게 絳, 黃色의 使用를 禁한 것이 아니고 眞骨女에서 부터 平人女까지에게 絳, 黃色의 使用를 禁한 것이었다.

聖骨層에서만 絳黃色을 사용하였다고 있는데 新羅의 聖骨은 始祖 赫居世부터 眞德王 까지 卽 1代부터 28代王까지를 聖骨이라 하고 武烈王부터 敬順王까지를 眞骨이라 한다.⁵⁾

眞德王 8年은 654 A.D이며 왕이 돌아가신 해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654 A.D에 太宗 武烈王이 卽位하였다. 興德王 服飾禁制가 제정된 것은 興德王 9年(834 A.D)으로서 武烈王代로 부터 무려 180年이나 경과한 후이다. 그러므로 興德王代의 王은 眞骨이지 聖骨은 아니다.

絳黃은 「封氏聞見記」에 絳黃, 絳色之多赤者라 하였다. 卽 絳黃色은 赤色이 많이 들어간 絳色인 것이다. 絳色에 대하여는 다음 項에서 논하겠다.

眞骨女부터 平人女에 이르기까지의 服色에 대한 興德王의 服飾禁令을 分析하여 보면 한가지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新羅女人들의 服色으로 禁止된 色은 대체로 거의 朱紫色 系統의 색이며 新羅官吏의 公服色과 관련되는 色이다.

三國史記 法興王 7年(520 A.D)條에는 처음으로 百官들의 公服과 朱紫의 차례를 정하였다고 하였다. 朱紫服은 新羅의 새로운 制度가 아니다. 朱紫色은 이미 中國古代로 부터 官中에서 使用된 색이었다. 「三國志, 吳志, 陸凱傳」에 土被玄黃, 宮有朱紫라 하였다.

唐代에도 五品 以上の 官吏가 朱紫服을 입기 시작하였고 朱紫服은 高官을 상징하기도 하였다.

法興王代의 公服과 朱紫의 차례에 대한 制定은 中國의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新羅에서는 法興王 7年에 처음으로 百官의 公服과 朱紫의 차례를 정하였다는 기록만으로는 그 內容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없는데 이것을 보강하여 주는 기록이 三國史記 卷33 雜志에 다음과 같이 있다.

4) 上揭書, 주석편, p.123.

5) 三國史記 券5, 新羅本紀 5, 眞德王 8年.

法興王制

自太대角干至太대阿浪, 紫衣

阿浪至級浪, 緋衣. 並牙笏

大奈麻, 奈麻, 青衣.

大舍至沮知 黃衣.

위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法興王代의 新羅 官吏의 公服色은 제일 높은 官品에서부터 紫, 緋, 靑, 黃色 順이었다. 法興王代의 公服色 制度가 興德王代까지 그대로 지속되었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唐 時代의 官吏服色이 상당히 변잡하여 잘 지켜지지 않았고 여러번의 律令이 내렸었던 것을 감안하면 더욱 그렇다.

Ⅲ. 九色の 解釋과 色名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女子服飾 色彩 規定에 나타나는 眞骨女 九色禁絳黃이라는 기록의 九色에 대한 해석은 翻譯本에서 해석을 한 것들이 몇몇 있고, 해석도 다른 것들이 있다.

北譯 三國史記(1958)에서는 九色을 아홉색갈 즉 靑, 赤, 黃, 白, 黑, 綠, 紫, 紅, 紺色으로 中國에서 使用하는 九色の 意味를 취하였다. 그 후의 몇몇 다른 번역본에서도 九色을 위와 同一한 의미로 번역하였다.

中宗任申刊本 및 鑄字本 三國史記에는 九色으로 되어있다. 九色은 九種色의 意味外에도 많은 色이란 意味도 있다. 譯註 三國史記에서는 九色을 凡色으로 보고 '모든 色'이라 번역하였다. 그 이유는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오는 色은 靑, 赤, 黃, 白, 黑, 綠, 紫, 紅, 紺의 九色보다 더 상세하게 분화된 것들을 가리키므로 여기서는 단지 '모든 色'의 뜻으로 쓰인 듯 하다고 하였다. 또한 三國史 節要 卷13 興德王 9年條 細注에 九色이 아니라 凡色으로 나오고, 任申刊本 三國史記의 '九'字는 자획의 구부러지는 모습이 다른 곳에 나오는 것과 字形이 달라서 어색하므로 本文을 '凡色'으로 수정하여 번역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本 研究者는 九色을 '凡色'으로 보지 않으며 따라서 '모든 色'으로도 해석하지 않는다. 또한 九色을 사전적 의미의 靑, 赤, 黃, 白, 黑, 綠, 紫, 紅, 紺의 九種色으로도 해석하지 않는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九色은 九種色이지만 이 九種色은 바로 興德王 服飾禁制에 記錄으로 남아있는 婦人服色인 九色인 것이다. 사전적 의미의 九色 卽 靑, 赤, 黃, 白, 黑, 綠, 紫, 紅, 紺色이 아니다. 卽 九色은 絳, 黃, 紫, 紫粉, 金屑, 紅, 黃屑, 緋, 減紫이다.

그러므로 本 研究者는 興德王 服飾禁制에 眞骨女부터 平人女까지의 女子 服飾色彩名으로 나타나는 色名을 다음과 같이 명명하고 分類하고자 한다.

(1) 絳, (2) 黃, (3) 紫, (4) 紫粉, (5) 金屑, (6) 紅, (7) 黃屑, (8) 緋, (9) 減紫

위의 九色 中에서 眞骨女에게는 絳, 黃 二色을 禁하고 나머지 7色은 使用할 수 있도록 許容한 것이다. 卽 紫, 紫粉, 金屑, 紅, 黃屑, 緋, 減紫의 7色을 眞骨女는 使用할 수 있었다는 해석이 된다.

六頭品女는 九色 中에서 絳, 黃, 紫, 紫粉, 金屑, 紅 6色의 사용이 금지되고 黃屑, 緋, 減紫의 3色을 使用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五頭品女는 絳, 黃, 紫, 紫粉, 黃屑, 紅, 緋 등의 7色이 禁止되고 減紫 1色만 使用이 許容되었다.

六頭品女에게 禁止된 金屑이 五頭品女와 四頭品女의 禁止 項目에 없지만 金屑의 使用은 이들에게도 당연히 금지된 것이라는 것은 明白하다. 그러므로 五頭品女에게 禁止된 色은 실제로는 8色인 것이다.

四頭品女와 平人女는 絳, 黃, 紫, 紫粉, 黃屑, 緋, 紅, 減紫의 8色 全部의 使用이 禁止되었다. 바로 위의 五頭品女항에서 언급된 것 같이 실제로는 金屑의 使用이 금지된 것이므로 四頭品女와 平人女는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9色の 使用이 전부 금지된 것이다.

그러나 新羅 女人들은 興德王 服飾禁制에 明示되지 않은 白·黑色을 포함하여 많은 다른 色을 그들의 服色으로 사용하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色彩에 대한 規定에서 女子에게만 色彩에 대한 禁制를 둔 것은 男子의 服飾에서는 色彩에 대한 禁制를 내릴만큼 사치스럽거나 다양하거나 또는 上下區別을 위한 목적에 위배되거나 남용되지 않았던 것으로 해석된다.

위의 禁制는 新羅時代의 婦人 服飾色彩는 대체

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었었고 또한 新羅女人들은 어떤 색을 선호하였었는지 알 수 있는 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그러나 服飾色彩名이 몇가지 되지 않음에도 위의 기록에 남아 있는 色名으로서 정확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많다.

IV. 新羅階級別 女子服色禁制

興德王 服飾禁制의 色彩에 대한 규정은 女子에게만 보이는데 그것들은 다음과 같다.

- 眞骨女 九色 禁 赭, 黃
- 六頭品女 色 禁 赭, 黃, 紫, 紫粉, 金屑, 紅
- 五頭品女 色 禁 赭, 黃, 紫, 紫粉, 黃屑, 紅, 緋
- 四頭品女 色 禁 赭, 黃, 紫, 紫粉, 黃屑, 緋, 紅, 減紫
- 平人女 色如 四頭品女 同

위에 明示된 階級別 服色規定을 보면 階級이 높을수록 9色の 사용범위가 넓다. 眞骨女는 9色 中에 2色の 사용이 금지되었고 六頭品女는 6色, 五頭品女는 8色, 四頭品女와 平人女는 9色 전부가 금지되었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婦人 服色으로 나타나는 9色, 卽 赭, 黃, 紫, 紫粉, 金屑, 紅, 黃屑, 緋, 減紫 色을 사용할 수 있었던 新羅 女人은 王妃만이었을 것이다.

위의 本文에 보이는 服色規定을 근거로 하여 각 계급별로 사용이 금지되었던 色과 사용할 수 있었다고 해석되는 色을 이해하기 쉽도록 表를

만들어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表 1>에서 볼 때 金屑에 관한 언급은 眞骨女와 5頭品女, 四頭品女, 平人女에게 없다 그러나 眞骨女는 金屑을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반대로 5頭品女와 4頭品女, 平人女는 金屑을 사용할 수 없다는 뜻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V. 新羅女子服色の 分類와 名稱

1. 赭

赭는 赤土의 의미가 있다. 赭는 또한 (1) 赤色, (2) 赤土色 또는 紫赤色을 의미한다.

「廣雅, 釋器」에 赭, 赤也.

「詩, 邶風, 簡兮」에 赫如渥赭.

「箋」에 赫然厚傳丹.

「釋文」에 赭, 丹也. 라 있다.

赭는 卽 赤色이고 丹色을 의미한다. 고대에 赤土로 옷감을 염색하였으므로 赭衣란 말이 있을 정도였다. 赤土를 赭라 하므로 赤土色을 赭라 한 것일 것이다.

赭色은 또한 紫赤色을 일컫기도 한다.

「山海經 西山經」에 竹山有草焉, 其名曰 黃蘗, 赤實, 其狀如赭. 「注」赭, 紫赤色. 이라 하였다.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女子服色에 들어 있는 赭色은 赤色(丹色), 赤土色, 紫赤色의 세가지 의미 가운데에서 赤土色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新羅의 赭色은 赤色 卽 丹色과 紫赤色 中의 하나였을 것이다.

<表 1>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色禁制

	禁 色	9色 中 사용할 수 있는 色	9色 中 사용할 수 없는 色
眞骨女	赭, 黃(2色)	紫, 紫粉, 金屑, 紅, 黃屑, 緋, 減紫(7色)	
二頭品女	赭, 黃, 紫, 紫粉, 金屑, 紅(6色)	黃屑, 緋, 減紫(3色)	
五頭品女	(7色)+1(金屑) 赭, 黃, 紫, 紫粉, 黃屑, 紅, 緋	減紫(1色)	金屑
四頭品女	(8色)+1(金屑) 赭, 黃, 紫, 紫粉, 黃屑, 緋, 紅, 減紫,		金屑
平人女	與 四頭品女 同		

新羅女子에게 禁止되었던 新羅의 赭色은 그것이 赤色(丹色)이었었거나 紫赤色이었거나 그것은 赤色系統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新羅女子들이 使用하였던 赭色이란 服色은 新羅高位官吏의 公服色인 紫, 赭色과 가까운 색이었을 것이다.

2. 黃

三國史記 興德王 服飾禁制의 婦人服色에서 黃色은 色과 함께 眞骨女에서 부터 平人女에 이르기까지의 女子에게 사용할 수 없도록 된 색이었다.

新羅衣服制度에서 黃色은 官吏의 公服色이었는데 大舍(第 12 官等) 부터 沮知(第 17 官等)까지의 官位에 있는 者가 黃衣를 입었다.

第 12 位 부터 第 17 位 까지의 官等은 新羅 骨品制에서 四頭品에 속한 者나 또는 眞骨, 6頭品, 5頭品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位置에 있는 者만이 얻을 수 있었던 地位였다. 그러므로 黃衣는 기본적으로 四頭品에 속한 者의 衣服이다.

黃은 地色, 日光色, 中央色으로서 中國에서는 古代로 부터 黃色을 君王服의 色으로 사용하여 왔다.

3. 紫

紫色은 靑赤色으로 만들어진 間色이다. 古代 中國人들은 紫色은 正色이 아니므로 紫色을 賤色으로 여겼다. 그러나 또한 紫色은 東西洋을 막론하고 古代로 부터 사람들로 부터 愛好된 색갈이었다. 「韓非子, 外儲說」에 桓公好服紫衣, 齊人尙之, 五素易一紫. 「李華, 雜詩」에 齊侯好紫衣, 魏帝婦人服. 이라 하였다.

「左氏, 哀, 十七」에는 紫衣狐裘, 至祖裘, 不釋劍而食. 「注」紫衣, 君服. 이라 하였다. 唐代에도 紫衣는 貴官의 衣服이었다.

앞에서 이미 언급된 바와 같이 紫色은 新羅 法興王代에 制定된 法에는 太角干에서 부터 大阿浪 卽 一品에서 부터 五品에 속한 사람의 衣服色이었다.

이 뿐 아니라 紫色은 新羅舞人의 衣服色이기도 하였다. 百濟의 舞者도 紫大袖를 입었다. 高句麗에서도 紫色은 貴한 색으로 사용되었다.

貴者의 冠色으로 紫色이 사용되었다. 紫羅冠은

高句麗 貴者의 冠이었다. 또한 高句麗 藥工人은 紫羅帽과 紫羅帶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新羅와 百濟의 舞자가 紫大袖를 입었던 반면에 高句麗의 藥工人은 紫色衣服을 입지는 않았고 帽와 帶만 紫羅를 썼다.

紫色은 眞骨女에게 禁止되지 않은 服色이다. 그러므로 興德王 服飾禁制 반포 이후 新羅婦人中에서 紫色을 그들의 服色에 紫色을 使用할 수 있었던 階級은 眞骨女 뿐이었다. 王妃나 王女도 眞骨이었을 것이므로 紫色衣를 사용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4. 紫 粉

紫粉은 六頭品女에서 부터 平人女에게 禁한 服色이다. 眞骨女만 사용할 수 있는 服色이고 六頭品女이하의 모든 新羅女人에게는 그 사용이 금지되었던 색이었다. 紫粉이란 색은 服色으로 뿐만 아니라 말 가슴걸이와 고들개의 끈(條) 색깔로도 사용되었던 것을 찾아볼 수 있다. 三國史記 33, 雜志 2, 車騎에 五頭品女 鞞鞞, 禁祖 及紫粉鞞條라고 하였다.

紫粉이란 색이름은 現在 우리가 사용하는 색명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색名은 소멸된 색名으로 생각된다.

紫粉이란 색이 어떤 색이나에 대하여는 紫粉이란 漢字의 뜻으로 보면 紫色과 粉紅色이 합하여 만들어진 색이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이것은 사전적인 해석일 뿐이고 맞는 해석도 아니다. 紫粉이란 색名은 물감을 들여서 얻어진 결과의 色彩가 紫色과 粉紅色을 혼합한 것 같은 색이기 때문에 染色 結果 視覺의으로 보이는 色彩에 붙여진 색名이지 紫色과 粉紅 染料가 혼합하여 만들어진 색名이 아니다.

紫粉은 색名이다. 이 색은 花靑과 粉紅을 調合하여 만든다. 中國의 색名에 粉紫가 있다. 粉紫는 粉紅과 花靑을 調合하여 만든 색이다. 新羅에서는 粉紫를 紫粉이라 하여 글자 순서를 바꾸어 사용한 것이 틀림없다.

花靑은 卽 靛靑이다. 이것은 染料名으로서 一名 藍澱 藍靛이라고도 하고 靛이라고도 한다. 藍澱이란 말은 舊稱이고 오늘날은 보통 藍靛이라 한다. 이것은 英語로 소위 Indigo라 불리지는 것

으로 藍色 天然染料의 一種이다.

藍을 물에 담가 하루동안 둔 뒤 石灰를 넣어 沈澱시킨다. 이것을 저으면 藍質 游沫이 水面에 일어나는데 이것을 花 또는 靛花라고 한다. 이것을 걸어서 말린다. 靛花를 靛靛이라고도 한다.

「芥舟學畫編」에 花靛 卽 靛靛, 蓋取浮於面上之彩謂之花, 其色青翠靈活, 畫家之要色이라 하였다. 「本草綱目」에 藍質浮水面者爲靛花라 보인다.

粉紅色은 淺紅色이므로 紫粉은 花靛 卽 靛靛 (Indigo)와 粉紅色이 混하여 만들어진 色彩이다. 紫色은 靛色과 赤色이 混하여 만들어진 色彩이다. 그러므로 紫色과 紫粉은 類似色이나 同色은 아니다.

5. 金屑

金屑은 黃金粉末을 意味하므로 服色으로서의 金屑은 黃金粉末을 뿌려 놓은 듯한 金色일 것으로 해석된다.

金屑은 六頭品女의 服色에 禁止된 色으로 나타난다. 이 色은 眞骨女에겐 허용된 색이지만 六頭品女를 포함한 그 이하의 新羅女人에겐 禁止되었던 服色이었음을 알 수 있다.

6. 黃屑

黃屑은 五頭品女의 服色에 禁止된 色名이다. 黃屑이란 말의 意味는 植物名이다. 이 植物은 古代 中國人이 土貢品으로 進上받은 것으로 보아서 貴하게 여겼던 物品 같이 생각된다. 黃屑에 대한 기록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唐書地理志」에 驪州 日南郡 土貢金薄黃屑象齒犀角沉香斑竹, 이라 하였다. 「南方草物狀」에는 黃屑在 山中, 藤生蔓延, 緣着樹木, 以九月中刮取根皮乾暴 日南黃屑, 이라 하였다.

黃屑은 南方産이란 것이 確認된다. 驪州 日南郡은 오늘날의 越南 東北部에 위치했던 곳인데 이곳 特産品이었던 것으로서 中國에 土貢品으로 바쳤었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明示된 黃屑이란 色名은 東南亞産 黃屑이란 植物에서 얻어진 染料로 染色한 色일 것이라고 推定된다. 이 黃屑이란 色이 어떤 色인지 確證할 수 없으나 黃色系統의 밝은 색이 아닐까 생각된다. 이 문제는 앞으로의 연구과제

로 미룬다. 그렇다면 新羅에서는 孔雀尾 翡翠毛 玳瑁犀角 등과 함께 黃屑도 東南亞 等地에서 輸入하였다는 의미가 된다.

7. 紅

「說文」에 紅, 赤白色也, 라 하였다.

釋名에는 紅, 絳也, 白色之似絳者, 라 하였다.

「儀禮 既夕禮」 練緹綿, 「注」一染謂之練, 今紅也, 라 하였으며 「廣雅疏證」에도 練謂之紅이라 하였다.

練에 대하여는 「儀禮, 士喪記」 麻衣練緣, 「注」에 練, 淺絳也, 一染謂之練, 이라 보인다. 「釋文」에 練淺赤色, 今之紅也라 하였다.

古代의 紅은 연홍색을 意味했던 것을 알 수 있다.

紅色은 眞骨女를 제외하고 六頭品女에서 부터 平人女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女子의 服色에 사용하는 것을 禁하였다. 紅色을 女子服色으로 禁한 중요한 理由 中の 하나는 이 色이 男子의 官服色인 緋色과 類似한 것에 있었을 것이다.

8. 緋

緋色은 眞骨女와 六頭品女를 제외하고 五頭品女 부터 平人女에 이르기까지의 女子 服色으로 禁止되었다. 緋色은 阿湓에서 부터 級浪(6~9品)까지의 官服色이었다.

「集韻」에 緋, 降色, 이라 하였고, 「類篇」에도 絳色이라 하였다.

絳色에 대하여 찾아보면 「說文」에 大赤也, 「段注」에 大赤者, 今俗所謂 大紅也, 上文純赤者, 今俗所謂 朱紅也, 朱紅, 淡, 大紅, 濃, 「廣雅, 釋器」 纁, 謂之絳, 「廣韻」 絳, 赤色, 「急就篇注」에는 絳, 古謂之纁이라 하였다.

緋는 絳色이다. 卽 緋는 大赤色(大紅色)을 지칭한다.

9. 減紫

減紫色은 四頭品女와 平人女의 服色으로 禁止되었다. 그러므로 減紫色은 興德王 服飾禁制의 9色 中에서 四頭品女와 平人女를 除外한 五頭品女 以上の 新羅女人들이 가장 많이 사용할 수 있었던 服色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減紫色이 어떤 색인지에 대하여는 北譯 三國史記⁶⁾에서는 未詳이라 하였다.

이 減紫色을 故 金東旭 教授는 “보다 옅은 紫色”, “조금 옅은 紫色”⁷⁾, “퇴색된 紫色”⁸⁾ 이라고 해석하였다. 譯註 三國史記 주석에서는 減紫를 “퇴색된 자주색”이라 해석하였다.⁹⁾ 이 해석의 原典을 밝히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 原典은 바로 위의 金東旭의 “퇴색된 紫色”을 “퇴색된 자주색”으로 옮겼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紫色을 우리나라에서는 紫朱色 또는 紫赤色이라고 服飾辭典 등에서 說明하고 있고 또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 그러나 紫色과 紫朱色 또는 紫赤色은 다른 색이다. 소위 우리가 紫赤色 또는 紫朱色이라고 말하는 색은 紫色과 비교할 때 紫色보다 붉은 색이 훨씬 많이 들어간 색이다.

減字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火熄의 意味를 取하여 불이 꺼지면 어둡고 캄캄하다. 卽 黑色이 된다. 그러므로 減紫色은 紫色에 黑色이 加味된 색으로서 鮮명한 紫色이 아니라 가라앉은 紫色 卽 黑少紫多之色이라 해석된다.

10. 纈 纈

纈纈이란 染色法의 한가지로 板染 또는 板縞라고도 한다. 이 染色法은 二枚의 板에 相同한 圖案을 透彫한 후 그 二枚의 板 사이에 縐를 끼우고 防染劑를 칠하고 그 다음에 染色한다. 色地에 흰색 무늬가 있는 染色物을 얻을 수 있다. 또는 그 반대로 圖案에다 染色할 수도 있다.

纈纈의 特徵은 對稱되는 圖案의 紋樣을 얻는데 있다. 纈纈 染色法은 唐代에 많이 愛用되었을 뿐만 아니라 日本에서도 많이 使用되었던 染色法이다.

新羅 興德王 服飾禁制에서 女子 服飾에 纈纈에 대한 禁制를 보면 新羅女子들이 纈纈로 무늬를 넣어 만든 옷감으로 옷을 해 입는 것이 널리 퍼져 있었고 유행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興德王 服飾禁制에서는 六頭品女의 表裳, 五頭品女의 襟, 襦, 短衣, 表裳, 內裳에 纈纈의 使用을 禁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 禁制에 의거하면 眞骨女는 위에 열거된 衣服에 纈纈로 염색한 직물을 사용할 수 있었고 六頭品女만 表裳만 제외하고는 眞骨女와 같은 衣服에 纈纈 染織物을 사용할 수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四頭品女와 平人女 項에 纈纈에 대한 禁制가 明示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서 그들에게 纈纈 染織物의 使用이 許用되었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四頭品女와 平人女도 적어도 五頭女와 同一한 纈纈使用에 대한 禁制가 적용되었으리라는 것은 明白하다.

VI. 結 論

이상의 結果에서 도출한 결론을 要約하면 三國史記 色服條의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新羅女子 服色은 9色으로 分類되었다. 이 9色의 色名은 赭, 黃, 紫, 紫粉, 金屑, 紅, 黃屑, 緋, 減紫였다.

新羅女子服色으로 禁止된 9色은 대체로 朱紫와 官吏의 公服色과 관련이 있는 색이었다. 眞骨女에게는 九色에서 赭, 黃, 二色만 금지한 반면 階級이 낮아질수록 使用이 禁止된 色數는 점점 많아져서 四頭品女와 平人女는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九色 全部의 使用이 禁止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興德王 服飾禁制의 目的 가운데 가장 중요한 目的中 하나는 上下와 尊卑의 區別을 위한 것이었는데 服色 禁制에도 이러한 目的은 잘 드러났다. 服色使用數의 많고 적음이 上下尊卑를 가리는 수단이 되었는데 이러한 수단의 사용은 비단 新羅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興德王 服飾禁制에 나타나는 女子 服色の 禁制로 볼 때 禁止된 色들은 前에는 新羅女人들이 사용하였었고 愛好하였던 服色이었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織物染色法에 대하여는 纈纈에 대한 禁制가 있을 뿐이었다. 그러나 다른 染色法도 新羅人들이 使用하였을 것은 明白하다.

6) 下 p. 139.

7)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1979, p.30.

8) 上揭書, p.104.

9) 韓國精神文化 研究院 譯註.

參考文獻

- 嘉禮都監 儀軌
廣解 大玉篇
金東旭, 李朝前期 服飾研究, 서울:韓國文化研究院, 1963.
金東旭, 韓國服飾史 研究, 서울:亞細亞出版社, 1979.
金富弼, 三國史記, 民族文化推進會刊.
金富弼, 金鍾權 譯, 三國史記, 서울:大洋書籍, 1972.
김부식, 사회과학원 고전연구실 옮김, 北譯 三國史記, 서울:신서원, 1959.
김부식, 이병도 역주, 三國史記, 서울:울유문화사 1983, 1997 개정판.
韓國精神文化研究院, 譯註三國史記, 서울:韓國精神文化研究院, 1997.
金英淑 編, 韓國服飾史辭典, 서울:民文庫, 1988.
尙方定例
柳喜卿, 한국복식사 연구, 서울:梨花女子大學校 出版部, 1980.
李喜煥 纂, 物譜.
李如星, 朝鮮服飾考, 서울:白楊堂, 1947.
李龍範, “三國史記에 보이는 이슬람 商人의 貿易品”, 韓國史學論叢, 1960, pp. 95-104.
이은창, 한국복식의 역사, 세종기념사업회, 1974.
李宰, 四禮便覽.
才物譜.
홍매경, 홍무경, 조선의복, 혼안제도의 연구, 서울, 乙酉文化社, 1948.
康熙字典
高承, 事物紀原集類. 台北:新興書局 中華民國 58年.
王字清, 韓國服裝史綱, 台北:中華大典編印會, 1969.
沈從文, 中國古代服飾研究, 香港:商務印書館, 1964.
周迅, 高春明, 中國歷代婦人 妝飾, 台北:南天書局, 1988.
周錫保, 中國古代服飾史, 台北:丹青, 1983.
中文大辭典
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服飾, 台北:中華五千年文物集刊 編輯委員會, 中華民國 75年.
張其昀 監修, 程光裕, 徐聖謨 主編, 中國歷史 地圖 上下, 台北:中國文化大學 出版部, 1980.
太平御覽, 台灣:商務印書館.
原田淑人, 唐代의 服飾, 東京:東洋文庫, 昭和 45.
朝鮮總督府 中樞院, 高麗以前의 風俗關係 資料 撮要, 朝鮮總督府 中樞院, 昭和 16年.